

## 삿포로 오쿠자시키~여름의 조잔케이~

삿포로시 중국국제교류원 류 아레이

삿포로시 국제교류원 류 아레이입니다.

일본 혼슈에 비해 삿포로의 여름은 항상 쾌적합니다. 삿포로에 체재한 지 3년째가 되는 저로서는 ‘혹서’라는 단어가 먼 옛날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삿포로에는 여름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 최대급의 비어가든, CITY JAZZ·PMF 등의 음악 이벤트, 삿포로 각지에서 열리는 여름 축제와 불꽃놀이 대회... 북쪽 나라의 사람들은 짧디짧은 여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삿포로의 \*오쿠자시키(奥座敷)’라고 불리는 ‘조잔케이(定山溪)’입니다. 조잔케이는 삿포로 근교에 있는 온천마을로,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일 년 내내 방문하는 곳입니다. 저는 삿포로에 살면서 사시사철의 운치 있는 조잔케이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

\*오쿠자시키: 본디 안방이라는 의미. 여기서는 주변 도시의 주민들이 애용하는 온천을 뜻한다.

저는 사계중 조잔케이의 여름을 가장 추천합니다. 온천은 물론 과일 채집체험, 승마, 등산, 카누, 리프팅, 캠핑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각종 체험에는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 삿포로시의 교류원 친구들과 함께 휴일에 조잔케이 캠프장을 방문해 생애 첫 캠핑을 해보았습니다. 조잔케이는 삿포로 시내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대자연 속으로 뛰어 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직접 텐트를 치고 바비큐 파티 준비를 하며 대자연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업무와 고민뿐만 아니라 함께한 친구들이 서로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사실조차도 깜빡 잊을 정도였습니다.



(사진 : 조잔케이 자연 마을 캠프장)

최근 들어 조잔케이에서는 또 하나의 즐길 거리인 ‘조잔케이 네이처 루미나리에’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작년 조잔케이 온천 개장 150주년을 맞아 처음 시작된 이벤트로, 조잔케이의 자연을 활용한 섬세하고 아름다운 라이팅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올해는 개최 2년째를 맞아 후타미공원에서 후타미쓰리바시 다리까지 이벤트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밝혀진 불빛들이 방문한 손님을 맞이하는 조잔케이의 밤은 깊은 매력을 발산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조잔케이를 꼭 한 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 조잔케이관광협회 공식사이트)

본 기사와 관련된 상세정보는 하기의 조잔케이관광협회 공식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HP : <http://jozankei.jp/> (일본어/영어/중국어간체/중국어번체)

문의

삿포로시 총무국 국제부 교류과

〒060-8611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1조 니시2초메

TEL : 011-211-2032 FAX : 011-218-5168

E-mail : [kokusai@city.sapporo.jp](mailto:kokusai@city.sapporo.jp)